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90年을 향한 目標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敎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THE GOSPEL NEWS

7月15日(月) <1991年> 第486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金榮植・編集人 金安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50円
昭和39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0474-24-7461

第七回 定期西部地方会

会長に 金信煥牧師選出

西部地方会 第七回定期
地方会が 六月十八日(火)
午前十一時 武庫川教会
開催された。

開会礼拝は 副会長 李
鍾國長老の 司会、会長辛
鍾國牧師の「 그리스도 예
수의 마음」(본문 빌립보
서二·五·十一) 제하의 설
교가 있었다. 辛鍾國牧師
는 結句・용서・사랑복종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고 강조했다.

李聖雨牧師의 司式、林
秉魯、李相睦、金吉雄、玄
承植四長老의 陪餐으로 聖
餐式이 執行되었다.
地方会長 司會로 開會
來賓紹介로 總會長 金榮
植報告 部長이 報告書에
따라 報告하니 그대로 承



武庫川教会에서 열린
第7回西部地方会 代議員들

會計 李相睦長老
副會計 金吉雄長老
宣道部長 辛鍾國牧師
教育部長 金得三牧師
社會部長 李炳春長老
婦女部長 李聖雨牧師
青年部長 趙尚浩牧師
試取部長 文泰善牧師
視察部長 金信煥牧師

武庫川教会에서 열린
第7回西部地方会 代議員들
의 課業에 參加함으로서
民族史、世界史를 하나
나 하나의 到來에로 指示
게 된다... 하나 나라
는 불의 한민족, 世界革命
없이 하나 나라에로의 歷
史의 行進없이 저절로 到
來하는 것이 아니라 고 強
調했다.
高基俊牧師는 第一回東
京會議을 과거一年間, 實
踐해 왔음을 報告, 宣敎
課題인 統一을 위해 南
北, 海外教会가 全力을 다
해야 하며, 따라서 海外同

第二回 平和統一東京會議開催

海外同胞教会協議会 結成키로



7月9~12, 在日本韓国YMCA에서 가진
第二回 東京會議

南北·海外에서 八十名參加 韓民族 同質性 確認

祖國의 平和統一과 宣
敎에 関한 基督者 東京
會議가 七月九日(火) 早
午十二時(金)까지 朝
鮮基督教徒聯盟 高基俊牧
師를 비롯 韓國 카나다,
미국, 독일 등에서 八十
名이 參加한 가운데 在
日本韓國YMCA에서 開
催했다.
開會禮拝는 金君植牧師
(統一神學研究所長)의 司
會로 參加者가 밖에서 대
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소
원」을 부르면서 입장, 먼
저 겨레와 民族을 사랑
하지 못했던 잘못을 뒤
우치는 마음으로 손을 얹
고 남북이 잘라진 고동
에 동참하는 뜻에서 쓴

金雲鳳牧師(朝鮮基督教
徒聯盟平壤市副委員長)의
祈禱, 東京第一教會 聖歌
隊의 讚揚, 李義鎬牧師(大
韓 예수교長老會 平和統一
委員長)의 「民族의 살길」
(본문 에스겔七·十一)
題下의 說敎, 崔基煥監督
(富川第一監理敎會)의 祝
禱로 開會禮拝를 마쳤다.
參加者를 歡迎하는 統
一찬사가 場에 열렸다.
李大京牧師(平和統一宣敎
委員長)의 司會아래 各
敎團 代表의 인사, 박조
준목사의 宣道으로 축배
가 있은후 會餐을 나눴다.
第二部는 鄭相熙牧師(橫
濱賀敎會) 司會로, 統一마



關東地方会主催 歡迎會에서 인사하는
고기준목사

医療法人 キム医院
医学博士 金世榮
(大阪教会 長老)
大阪市生野区中川3丁目5-2
(ジョイフルマンション1F)
☎ (06) 752-4567
《診療科目》
内科(循環器・呼吸器・消化器)
小児科・麻酔科・理学診療科・放射線科
《診療時間》
AM 9:00~12:30, PM 5:30~8:00
休診(水・土曜日午後・日曜・祝日)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愛
有限会社 三
取締役社長 張鐘善
(名古屋教会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愛三産業株式会社
(株) 済州カントリークラブ
代表取締役 白昌鎬
(東京教会長老)
専務取締役 白一善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633-7477(代)
FAX (03) 631-7703

＊民族平和와 統一를 위한＊

8.15 光復節 記念礼拝

趣 旨 文

우리 民族은 苦難의 民族이다, 이 苦難은 平和와 戦争으로 해석되며 民族의 歴史의 事件들로 연결됩니다. 우리 祖国의 近代史는 日本의 平和 파괴와 民族말살전쟁사로 이어온 36年の 苦難史요, 6.25戦争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南北의 40年 分断史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民族에게 解放의 기쁨을 주셨으나 오늘의 祖国은 分断의 비극을 계속하고 있으니 民族의 고난은 점점 커져왔습니다.

하나님은 祖国을 위한 民族統一과 和解와 平和를 찾아 눈물로 기도하는 国内外의 基督者들의 음성을 들으시며 民族苦難을 풀어나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계심을 확

신하는 바입니다.

1984年 11월에 東山莊에서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正義에 関한 協議會」모임 이후 1986年 9월에 스위스 글리온에서 第一次 南北基督教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1988年 4月 仁川에서 「民族統一과 平和에 对한 韩国基督教會 宣言」으로 全世界에 연대하는 合意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在日大韓基督教會는 해외에서 1988年 7月 5日 教役者, 長老綜合研修會에서 「民族의 和解와 統一을 위한 宣言書」를 發表하며 毎年 8.15 가까운 主日을 民族 和解와 統一을 위한 記念礼拝로 드리기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南北이 하나 되는 날까지 民族의 共同課題인 和解와 統一을 祈願하며 記念礼拝에 초대 받아 다함께 기도합니다. (아래 資料는 1988年 「8.15光復節記念礼拝」내용을 各教會와 地方에 참고로 실어 드립니다. 今年度の 資料로 活用되기를 바랍니다.)

——남북선교 위원회——

(＊표는 일어서서)

＊임례송..... 9장 (거룩 거룩거룩)다 함 깨

＊예배예의 부름

인도자 :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회 중 :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인도자 :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

회 중 : 제단의 예물보다 현제간의 화해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함께 : 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 송.....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다 함 깨

＊한반도 민족통일을 위한 세계기도주일 기도문 교독다 함 깨

(이 기도문은 1988年 11월에 세계교회협의회 주최로 스위스 글리온에서 열린한반도 평화통일 협의회에서 남북한 교회대표와 세계교회가 1995년을 "통일의 해년"으로 선포하고 매년 8.15직전주일을 공동기도일로 지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채택된 기도문입니다.)

인도자 : 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이땅과 모든 생명을 육성하시며 보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 중 :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노예가 해방되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도자 : 원수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 중 : 하나님의 무리들이 화평하게 살며 하나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도자 : 주님,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회 중 : 이 세상은 지금 억압의 멍에를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 전쟁과 적대관계는 많은 나라의 민족들에게 파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회 중 : 오 주님이시여, 증오와 분열이, 최악으로 가득찬 이 세상의 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자 : 저희는 주님앞에 이 땅 한반도 백성들의 한의 외침을 아뢰옵니다.

회 중 : 저희는 외세의 정령과 제국주의의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인도자 : 저희는 동족상잔의 엄청난 파괴와 잔인한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회 중 : 저희는 저희들 자신의 잘못이 아닌 민족분단에 의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인도자 : 오! 사랑의 하나님

회 중 : 언제까지 남과 북의 동포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인도자 : 언제까지 저희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야 합니까?

회 중 : 언제까지 1천만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있어야 합니까?

인도자 : 언제까지 저희들의 운명이 외세와 남들의 이념 때문에 좌우되어야 합니까?

회 중 : 언제까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인도자 :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존엄성을 빼앗기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자유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회 중 : 오, 주여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분열된 세계의 회생으로 만들어진 한반도의 분열에 대한 비통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인도자 : 주님은 평화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저희는 즐거워하며, 확신하며, 찬양을 드리옵니다.

회 중 :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징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도자 : 40여년동안 주님은 이 한반도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오래 견딜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의,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회 중 : 주님은 너무도 오랫동안 끌여온 어두움 속에서 작은 빛을 주셨습니다.

인도자 : 주님은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셨습니다.

회 중 : 주님은 통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화해와 소망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인도자 :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회년의 복음과 해방과 자유와 일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 중 : 분열의 죄수들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편견과 미움과 질투, 욕심과 권력으로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시옵소서.

회 중 :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세상과 한반도에 평화와 일치, 위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인도자 : 주여, 저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호소합니다.

회 중 : 남한과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 세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합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시다. 아멘

찬 송.....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다 함 깨

기 도.....말 은 이

1) 분단의 죄책을 고백하며 (목회자)

2) 통일을 위해 일하다 투옥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여자 어린이)

3) 한반도의 군비축소와 평화통일회원을 위해 (청년)

성경봉독 I 구약 : 미가 4 : 2~5말 은 이

성경봉독 II 신약 : 갈라디아서 5 : 13~15말 은 이

찬 양.....성 가 대

말 송.....설 교 자

찬 송.....다 함 깨

공동기도..... 1991年 남북 평화통일주일 공동기도문다 함 깨

(이 기도문은 1991年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 7차 총회에서 만나 남북교회공동예배와 성찬식을 가진 남북교회의 대표들이 올해의 기도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옵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구원이신 하나님,

당신께 권세와 존귀와 찬양을 돌리옵시다.

우리 민족을 일찌기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당신의 뜻을 저버렸나이다.

열강들의 다름에 휘말려 이념과 사상으로 남북을 가르고

미움과 불신으로 형제를 적으로 삼고

분열과 전쟁으로 삼천리 강산을 피로 물들게 한 채 당신의 뜻을 외면하며

어리석게 살아온지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제 36년을 인내로 연단시키신 하나님,

그러나 분단 46년은 너무도 긴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천년 거래의 숨결을 간직한 이 아름다운 땅위에

아직도 동족의 가슴을 겨누 총과 칼들이 거래의 맥을 끊고 있으니,

남북으로 나뉘어 헤어진 혈육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민족통일의 길을 섭리해 오신 주님,

남북의 교회가 손잡고 1995年 민족통일의 회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미움을 사랑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분열을 하나되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심어 해방 50년이 되는 그 날에는

민족이 통일되는 당신의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46년을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해온 거래의 한결같은 염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흠어진 부모형제 한핏줄로 잇고

먼곳에 유랑하던 한민족이 자유롭게 조국을 찾으며

남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뛰놀고

남북의 처녀총각들이 짝을 지을 수 있도록

반도강산 허리에 꽃한 쇠뿔들을 모두 뽑아 버리고

손에 든 총, 허리에 찬 칼 모두 내려놓고

핵무기와 공해로 썩은 땅 갈아엎고

흠어진 강물 봇물터서 하나로 흐르게 하여

거래가 한마음으로 일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해방 6 년이 되는 그 날에는 정의가 푸른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평화의 종소리가 하늘을 가득차게 하시사

회년의 소망이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거래의 순결한 뉘만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가득 피어나

하나된 거래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다 함 깨

<성만찬>

성만찬예의 초대집 례 자

인도자 : 지금 우리는 민족간에 전쟁이 쉬지 않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구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이 성만찬 식탁에 초대하시고 축약에 놓인 우리들을 영생의 신비에 이르게 하십니다.

회 중 : 주여,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시다. 우리의 찬양과 십자가의 결단을 받아주옵소서.

찬 송.....185장 (내 너를 위하여).....다 함 깨

성령임재의 기원집 례 자

인도자 : 주여, 이제 이 성만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회 중 : 우리에게 허락하신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과 한 피가 되는 신비에 이르게 하옵소서.

인도자 : 우리가 비록 이전까지는 폭력과 전쟁의 노예였고 민족분단의 고통과 죄악을 외면한 비겁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회 중 : 이 성만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하게 하옵소서.

다함께 :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일으키옵소서. 아멘

성만찬 제정의 말씀집 례 자

인도자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잡수신 후에, 또 이와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작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회 중 :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자 : 이웃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과 모든 앞에 바쳐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성직자들의 수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말씀을 따라 골고도로 오르며 폭력의 제물로 죽어간 성도들,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죽어간 자매들과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 중 : 오 주여, 모든 교회와 성도와 피조물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찬례집 례 자

인도자 : (떡을 높이 들고 우러러 보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인도자 : (잔을 높이 들고 우러러 보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 : 아멘

성만찬 찬송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동안)성 가 대

현 금.....1995회년 공동사업을 위하여.....다 함 깨

현금기도.....말 은 이

＊찬 송.....261장 (어둠 밤 마음에 참거).....다 함 깨

＊축 도.....말 은 이